

보도자료

2014년 11월 04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(방통위)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반상권 과장(☎2110-1270)

박지인 주무관(☎2110-1279) pchooper@kcc.go.kr

(방심위) 방송심의국 방송광고심의팀 최광호 팀장(☎3219-5270)

이성우 과장(☎3219-5273) starain@kocsc.or.kr

TV 켤 때마다 눈살 찌푸리게 하던 금융상품 방송광고 방통위와 방심위 손잡고 제재

- 보험·대부·상조·금융캐피탈 4개 금융분야 공동모니터링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박효종)는 TV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.

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하여 '보험·상조·대부업·금융캐피탈'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·8·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하였다.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(최대 12분 기준)을 위반한 사례가 6건,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'계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'가 28건 있었으며, 위반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'과태료'를,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'권고'를 처분 할 예정이다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하여 '권고'를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.

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「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으로,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▲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▲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 끝.